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⑩ 석가봉



드디어 부처님을 뵈다

칼바위능선의 봉우리로 성북구 정릉동에 속해 있다. <북한지>에 “동문 밖 청수동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 ‘동문’은 지금의 대동문을, ‘청수동’은 현 정릉부근의 청수장 일대 계곡을 말하는 것이다. 대동문 밖이라 하였으므로 석가봉은 속칭 칼바위능선의 정상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보국문 자리를 예로부터 석가고개라 불려왔는데 북한산성 축성 후 봉우리들의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석가고개에서 가장 가까운 현 칼바위능선 정상에 붙인 이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실록 9년 기록에도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석가봉은 부처님이 계시는 봉우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칼바위능선 아래 작은 초막을 짓고 사는 불망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고구려에서 왔다고 해서 고구려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은 밤에는 호랑이가 출몰해서 약초꾼들도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서두르는데 불망 스님은 해가 지면 칼바위능선에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소원은 단 하나,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십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불망 스님은 삼 년 간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조금 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볼 수 있으리라 기다린 세월이 십년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눈앞에 그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달이 뜬 날에도, 칠월같이 어두운 밤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한결 같이 기도를 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니 장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을까?” 하는 자만심에 빠져 산을 내려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자신이 앉았던 발아래 푸르스름한 이끼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위에 바짝 몸을 붙이고 나직이 숨을 쉬는 이끼를 보는 순간 불망 스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비바람, 눈서리를 맞으며 버티고 있는데 기껏 삼년을 견뎠다고 대가를 받으려하니...”

불망 스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또 다시 삼년이 지났지만 불망 스님은 여전히 부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금생에는 부처님을 뵈을 수 있는 복이 없는 모양이구나.”

스님은 자신의 복 없음을 탄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금생에 복을 짓지 못했으니 내생에나 친견할 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앉았던 바위 앞에 깃털 속에 목을 묻고 쫓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앞가슴에 새를 넣고는 저고리를 느

슨하게 풀어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새도 모든 시련을 겪으며 묵묵히 살고 있는데 사람이 내가 이 정도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삼년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자 스님은 품었던 새를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새는 대견스럽게도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스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부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불망 스님은 아직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시길 기원했습니다.

불망 스님이 바위를 내려가기 위해 아래를 바라보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기위해 앞발을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토끼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추위에 가족이 굶어 죽을까 먹이를 구하려 나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 주십시오.” 스님은 토끼를 살려 보내주고 했지만 호랑이 또한 당장 먹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불망 스님은 토끼 대신 자신을 먹으라며 호랑이를 설득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던 호랑이가 몇 번을 되문자 불망 스님은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고는 자신을 먹으라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때 우우웅, 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이 눈을 떠보니 칼바위 능선 꼭대기에 광명이 비추고 드디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부처님.”

불망 스님은 호랑이에게 부처님을 뵈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청을 하고는 칼바위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스님 앞에 우뚝 섰습니다. 금빛 찬란한 몸, 너무나도 성스러운 얼굴, 불망 스님은 가슴이 벅차올라 부처님 발 밑에 몸을 굽혔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토록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어 할 때는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야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불망아,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어 뿐이다.”

스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다가 호랑이와의 약속이 생각나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도, 토끼도, 호랑이도 다 사라지고 천지에는 향내만 가득했습니다.

불망 스님은 칼바위 능선 꼭대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을 친견하는 이치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치를 아는데 십년이 걸렸습니다.”

합장을 한 불망 스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애기꾼> 권현숙

쇼토쿠 태자의 불국 염원 담긴 백제식 가람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⑩ 오사카 시텐노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의 전경. 쇼토쿠 태자가 발원하고 백제 명공 유 씨가 지은 시텐노지는 백제의 가람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와(和)를 귀하게 여겨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만 현명한 자는 적다. 이에 임금을 따르지 않고 이웃과 다툰다. 만약 뒷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여 의종계 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 합의한다면 도는 저절로 통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17조 헌법 중 일부이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통해 일본의 초기 국가 체제를 완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그의 17조 헌법에 삼보를 공경할 것을 명하고 선악의 도리로 불교를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쇼토쿠 태자는 17조 헌법을 통해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인 ‘와(和, 화합)’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전통 시조를 와카(和歌), 일본 전래의 풍속을 와후(和風), 일식을 와쇼쿠(和食), 일본 전통 과자를 와카지(和菓子, 화과자)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불교 개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585년부터 일본은 불교 공인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논쟁을 겪게 된다. 내용은 승불 세력인 요메이 천왕과 소아 씨는 당시 배불세력이었던 귀족 모노노베 씨와 전쟁을 벌였다. 당시 13살이었던 쇼토쿠 태자마저도 전쟁에 가담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는 전쟁에 참전하던 중 한 숲에 들러 불나무(우나무라)를 잘라서 ‘사천왕상’을 만들어 높이 받들면서 무릎 꿇고 사천왕에게 맹세하기를 “만약 이번 전쟁에서 제가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사천왕님들을 받드는 절과 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때 총사령관인 소가노 우마코 대신도 “사천왕들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三寶)를 널리 위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했다. 이후 전란을 수습한 쇼토쿠 태자가 오사카에 ‘시텐노지(四天王寺)’를 건립한 것은 이 같은 발원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시텐노지는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7대 사찰 중



시텐노지의 본존불인 구세관음상. 쇼토쿠 태자의 이념이 그대로 들어난다.



시텐노지 옆으로 시텐노지 학원이 보인다. 이 학원은 일본 명문사학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쇼토쿠 태자 7대 도량 중 하나

종파 구애 없는 日불교 총본산

區가 곧 사찰... 교육·복지 총력

하나로 ‘곤고묘시텐노다이고코쿠노데라(金光明天大王大護國寺)’라고도 불린다. 종파는 천태종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 불교의 창시자인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일본 최초의 불교사찰이라는 점에서 종파에 구애받지 않는 와슈소혼잔(和宗總本山, 일본 불교의 총본산)으로 1946년 독립했다.

시텐노지의 구조는 백제 가람과 매우 흡사하다. 사찰의 중문과 오층탑 및 금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해 사방은 회랑으로 둘러쳐 있다. 특히 오층탑의 웅장함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텐노지가 백제 가람과 닮은 것은 가람을 지은

사람이 백제의 명공 유 씨(柳氏)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시텐노지를 건립한 명공 유 씨는 쇼토쿠 태자의 생부인 요메이 천황에게 곤고(金剛·금강)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훗날 이 가문은 오사카의 건국 전신회사인 ‘곤고구미(金剛組)’로 발전했다.

‘구세관음’을 본존불로 삼고 있는 시텐노지는 현재 오사카의 한 구(區)를 차지할 정도로 사적이 크다. 시텐노지가 있는 지역명은 정확하게 오사카 덴노지구(大板天王寺區)로 이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시텐노지 소유다. 본존불이 자비를 나타내는 구세관음인 만큼 시텐노지는 교육과 복지 등 지역 민을 위한 기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덴노지구 안에는 시텐노지가 운영하는 시텐노지 병원과 시텐노지 학원(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텐노지 학원의 경우 일본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이 국민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본불교의 모습은 한국불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시텐노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문화재는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무대인 ‘이시부타이(石舞台)’다. 이곳에서 백제의 음악 무용가 미마지(未麻之·6~7C 추정)는 일본인들에게 고구려의 사자춤과 탈춤을 전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수된 춤과 음악은 매년 4월 22일 시텐노지에서 열리는 쇼토쿠 태자 위령제 ‘성령회 무악 개법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정립해 낸 쇼토쿠 태자. 일본이 불국토가 되길 바랐던 그의 염원은 시텐노지에서 지금도 면면히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30cm x 63cm ★국판3절
 • 매수: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26cm x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25.8cm x 26.5cm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 9.5cm x 13.4cm • 매수: 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 8.9cm x 9.5cm • 매수: 16장